

전문가를 활용하고 생력화된 시설 갖춰야

은 해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되는 원년이다.

돼지해인 금년에 WTO체제가 출범하는 것은 한국양돈산업에 행운을 가져다 줄 것인지, 불행을 안겨줄 것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숙명적인 운명'처럼 묘한 예감을 주면서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말았다. 행운이라면 기쁘게 맞고 불행이 라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한국인 특유의 「은근」과 「끈기」, 그리고 「강한 정신력」을 바탕으로 최고만이, 초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비정한 약육강식의 세계화에 과감히 도전해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죽느냐, 사느냐'의 결전장에



김영욱 원장
(한국양돈개발원)

우리가 섰지만, 이긴다는 자신감과 물러설수 없는 배수진의 비장의 각오로 싸운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으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고 했지 않는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WTO 체제에 도전하는 우리의 임전

태세를 점검하고 약점을 보완하여 필승의 전략을 세워보자.

1.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우리 나라의, 아니 우리 민족의 살길은 오로지 '뭉치면 산다.'는 이 한마디로 함축시킬 수 있다. 저 이스라엘민족의 강한 응집력을 배워야 한다.

세계에서 아직도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의 비극속에서 같은 민족이 서로를 원수처럼 증오하고 적대시하며 '한판불자'는 한심한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 남북으로 갈린 것도 통탄할 일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족의 정서마저도 언제부터인가 동서로 갈라놓는 위정자들의 작태는 눈뜨고 볼 수 없고 울분을 억누

를 수 조차 없을 지경이다. 내집 안이 이려고서도 나가서 잘 되기를 바랄 수 있겠는가?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이라 했다.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양돈인들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생산자단체들도, 연구회도, 연구기관과 학계도 이제는 양돈산업의 사활이 걸린 이 시점에서나마 뭉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뭉쳐야만 살길이 보이고, 뭉쳐야만 힘이 생기고, 뭉쳐야만 너도 살고 나도 산다.

2. 수출경쟁력을 키우자.

국가가 사는 길도 수출 뿐이지만 한국 양돈산업의 살길도 오로지 수출뿐이다. 누구나 말로는 양돈만은 국제경쟁력이 있느니 수출만이 살길이니 해왔지만, WTO체제를 맞은 오늘까지 제대로 수출양돈으로의 기반도 경쟁력도 키워주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외관상으로는 육류수출협회가 발족되었고, 수출단지, 양돈조합, 양돈영농조합, 협업단체, 산학협동연구법인을 비롯한 양돈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그럴듯해 보이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느 것 하나도 제

“

이제 국제화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양돈인들의 대동단결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도 생산자단체들도, 연구회도, 연구기관과 학계도 이제는 양돈산업의 사활이 걸린 이 시점에서나마 뭉치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자멸하고 말 것이다.

”

대로 되고 제구실을 하고 있는 것이 없는 것 같다.

가. 일본시장에 신용을 쌓자.

지금까지 수요자인 일본에 불신만 심었지 신용이라고는 조금도 쌓은 것이 없다. 수요자의 신용이 없이는 받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공급이란 일어날 수 없는 것이다.

1) 수요자가 원하는 돼지고기를 생산해야 한다.

① 우선 위생육을 원한다.
경제대국이며 세계 일등국민

이라고 자부하는 일본인들이 병든 돼지고기를 원할리 없고, 항생제와 설파제 등의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비위생적으로 처리된 고기를 받아 먹을리 만무하다. 그래서 우선 각종 전염병 뿐만 아니라 만성소모성 질병의 최소화를 위한 완벽한 방역체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지금까지의 항생제와 설파제 등의 약제첨가사료급여를 조속히 중단하고 생약, 생균, 효소, 면역요법 등의 자연요법으로 일대 전환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수출전용의 위생적 도축장을 건립하여 도축가공의 위생적 처리를 일본인들에게 확신시켜주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믿을 수 있도록 하자.

② 맛있는 돼지고기를 원한다.

한국 돼지고기 하면 “맛있다”라는 말이 일본인 수요자들 입에서 바로 튀어나와 주어야 한다. 맛은 종자, 환경, 사료, 가공 등의 종합적 예술품이므로, 어느 한가지도 소홀히 해서는 좋은 맛을 낼 수 없다.

③ 신선육·냉장육을 원한다.

일본내에서도 신선육·냉장육이 냉동육보다 20~30% 더 비싸게 팔린다. 가장 거리가 가까운 한국에서 고부가가치의 신선육·냉장육을 일본에 수출해야만 한국 양돈산업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국제경쟁력상

질적인 차별화의 어찌면 유일
한 돌파구일 것이다.

④ 제품의 규격화·균질화를
원한다.

수요자는 누구나 규격화되고
균질화된 상품이 제때 공급되
기를 위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수출돈육의 실태는 생산원료육
부터 제멋대로이고 보니 제때
공급은 커녕 제대로 규격화·
균질화가 될 수가 없었다. 이제
우리 생산자들이 책임을 통감
하고 수출원료돈생산의 규격
화·균질화를 이뤄내야 할 것
이다. 또 수출업체는 원활히 공
급계약을 이행해야만 한다.

2) 값이 저렴해야만 한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육·위
생육·맛있는 돈육을 생산수출
하기란 물론 어렵다. 그러나 어
렵지만 해내야 하고 해내는 나
라만이 수출을 할 수 있고, 그
나라의 양돈산업이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생산원가경쟁에서 기
필코 이겨내야 하는 것이다. 모
든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기필
코 현지점에서 생체 kg당 1,000
원 이하로 생산원가를 끌어 내
려야 한다.

① 원재료비를 최소화 한다.

사료비의 비중이 60~70%를
차지하고 있어 공동노력에 의
한 사료비를 낮추지 않고는 해
결책이 없다. 양질의 사료를 값



싸게 공급받을 수 있는 수단방
법을 강구하고 낭비없는 습식
급이기, 사료효율을 높힐 수 있
는 기술을 총동원해야 한다.

② 생산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모든 1두당 연간 25두 출하
뿐만 아니라, 연간 모든 1두당
고기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 올
려야만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
다는 엄연한 사실을 잊지 말아
야 한다.

나. 북한시장도 대비해야 한다.

헐벗고 굶주린 북한동포들을
먹여야 한다는 민족애나 사명
감 때문만이 아니다. 이제 물자
교류, 남북공동투자, 그리고 북

한 이산가족에게 송금과 물자
를 주고 받고 재벌기업 총수를
비롯한 투자조사단이 속속 입
북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통일
이 가까워 오고 있음을 피부로
느낀다. 가까운 날 우리는 남북
한의 직접적인 물자교류가 급
속히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야
한다. 맨 먼저 보내야 할 것이
식량으로 쌀과 돼지고기가 최
우선이다. 그러면 돼지 사육두
수가 현재의 600만두로는 어렵
없고 1,000만두를 키워야 한다.
이것은 꿈이 아니고 눈앞에 닥
친 현실이다. 정부나 양돈 생산
자단체들은 이 점을 유념하여
북한 시장에 우리가 돼지고기
가 부족해 못 보내고 미국산 돼
지고기로 대체되는 슬픈 비극
을 연출해서는 안될 것이다.

사람도 먹고 살 곡식이 부족한 북한의 축산기반은 붕괴되어 버린지 이미 오래고, 굶어 죽으나 싸우다 죽으나 매일반이라는 북한 주민들의 분위기를 생각해서라도 하루 속히 정부나 우리 생산자단체가 나서서 북한으로 돼지고기를 다량 보내야 할 것이다.

3. 우선 당면문제부터 해결하라.

가. 사고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자신감 없는 싸움은 해보나 마나다. 정부도 생산자단체들도 그리고 양돈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는 양돈컨설턴트라는 전문가들도 우선 양돈인들에게 자신감을 불어 넣어야 한다.

패배주의적 사고는 금물이다. 모두 양돈산업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불안해 하면서 의욕을 잃고 재투자자 커녕 양돈업을 포기하는 양돈인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만 가는 현재 분위기를 쇠신하여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공격양돈으로의 일대 사고의 대전환이 시급하다.

한국 양돈산업은 세계화, WTO체제가 출범되는 돼지해(乙亥年)를 맞아 힘차게 도약할 수 밖에 없는 '숙명적 운명'을 가진 앞날을 약속받은 최



고·최적의 산업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나. 양돈전문가를 최대한 활용하자.

몇 안되는 국내 양돈전문가들이지만 모두들 세계 어느 전문가들보다 많은 지식과 경험을 쌓았고, 모두 20년이 넘는 실전체험을 갖추고 있다. 지난 긴 세월동안 전문가를 경시해 온 잘못된 업계 풍토 때문에 온갖 고초와 설움을 겪어 왔지만, 이들 진정한 양돈전문가들만이 오늘의 한국 양돈산업의 살길을 알고 안내할 수 있는 것이다.

다. 무배출돈사로 폐수를 해결하라.

누가 뭐래도 폐수처리는 무배출지향만이 한국실정에서 양돈을 계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향이므로 어떤 난관도 이 방향에서 해결해내야 한다. 물론 분뇨는 퇴비화·자원화 시켜야 한다.

라. 모든 시설은 생력화하라.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는 것은 재벌이나 자본가들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우리 일반 양돈농가는 있는 시설에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머리를 써라. 과잉투자는 금물이며, 또 인력의존형의 설비는 이제부터는 자멸의 길이다.

■